



남성 동성애자의 소셜미디어에 인식과 이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SNS, 인터넷 커뮤니티, 데이팅앱이 남성 동성애자의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호규현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나은영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대학 교수

An Exploratory Study of Male Homosexuals' Awareness and Use of Social Media*

Focusing on the Impact of Social Media, Internet Communities, and Dating Apps on Male Homosexuals' Social Relationships

Gyu Hyun Ho**

(Ph. D. Candidate,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s, Sogang University)

Eun-Yeong Na***

(Professor, School of Media, Arts, and Science, Sogang University)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research that aims to investigate how homosexual men perceive and use social media, focusing on the three main online spaces they use the most: social networking sites (SNS), online communities, and dating apps. The study explores the roles, functions, and meanings of SNS, online communities, and dating apps through the eyes of homosexual men. It also looks into whether using these platforms has an impact on online social support, social capital, and emotional outcomes such as loneliness. A mixed-methods strategy was used to accomplish the research goals, and adult homosexual men in South Korea who had previously used the designated social media platforms participated in in-depth interviews and an online survey.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February 2, 2023, to February 13, 2023, with eight participants being interviewed, and 145 survey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Sogang University research fund in 2022 (No : 2022120212.01), and permitted by IRB (SGUIRB-A-2301-02). Also,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the Junior Scholars Network of LGBTIQ Research and the three members of the journal review committee who made suggestions to fill the gaps in the research. (이 연구는 2022년도 서강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과제번호 : 2022120212.01), IRB 승인 이후 진행되었음(SGUIRB-A-2301-02). 또한, 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제안해주신 성소수자사진연구자네트워크와 학술지 심사위원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sin7552@gmail.com, first author

*** ena@sogang.ac.kr, corresponding author

responses were collected, out of which 140 were utilized for the analysis. The findings revealed that while SNS, internet communities, and dating apps were commonly expected to serve the function of confirming the presence of others, each online space was observed to elicit distinct expectations based on its usage. Moreover, social media was perceived to hold a semi-essential meaning in homosexual men's social relationships, coexisting as a means to overcome physical space limitations and enhance physical space density. Regarding the impact on social capital, the analysis of the online survey indicated that the usage of internet communities and dating apps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social capital. However, SNS usage demonstrated a static effect on social capital. In-depth interviews highlighted that homosexual men utilize social media to gain a sense of support and security by confirming the presence of others. However, the experience of loneliness was perceived to manifest in complex patterns, with potential increases or decreases depending on the context. According to statistical analysis, SNS usag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online social support, while for loneliness, the statistical model's fit (F-statistic) was not significant, indicating that exploring the influence of homosexual men's social media usage on loneliness was not appropriate. In conclusion,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because it illuminates an understudied facet of homosexual men's social media usage in South Korea and aims to provid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through a mixed-methods approach. However, it is essential to consider limitations such as potential participant bias towards specific social media platforms, inadequate consideration of differences among each online space, and the small sample size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findings.

Keywords: Gay, Social Network Services, An Online Community, Dating App, Gay's Social Relationship

국문초록

본 연구는 남성동성애자의 소셜미디어에 대한 인식과 이용에 관한 영향을 탐색적으로 살펴본 연구로서, 당사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공간인 SNS, 인터넷 커뮤니티, 데이팅앱이 사회적 관계에서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진행됐다. 남성 동성애자에게 SNS, 인터넷 커뮤니티, 데이팅앱과 같은 소셜미디어가 어떠한 기능, 의미, 역할로 인식되는지 살펴보고, 이용에 따라 사회자본이나 온라인 사회적지지, 외로움과 같은 정서적 영향을 받는지 확인했다. 이를 위해 해당 소셜미디어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국내 성인 남성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혼합연구방법을 적용했다. 2023.02.02.~02.13.까지 8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고, 온라인 설문조사는 총 145명의 응답을 수집해 140건을 분석에 활용했다. 분석결과 남성 동성애자에게 SNS, 인터넷 커뮤니티, 데이팅앱은 타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기능이 기대되기도 했으나 각 온라인 공간별로 고유한 기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관찰됐다. 또한, 남성동성애자의 사회적 관계에서 소셜미디어는 반(半)필수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인식됐으며,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역할과 물리적 공간의 밀집을 강화하는 역할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 커뮤니티나 데이팅앱

이용량은 사회 자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SNS이용량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 인터뷰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 사이의 사회적 관계에서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은 본인이 아닌 다른 당사자를 확인함으로써 지지감과 안정감을 얻는 한편, 외로움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양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인식됐다. 통계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사회적 지지의 경우 인터넷 커뮤니티, 데이팅앱 이용량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SNS이용량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로움의 경우 통계모형의 적합도(F 통계량)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남성동성애자의 소셜미디어 이용량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주목 받지 않았던 남성동성애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살펴보고, 혼합연구를 적용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자 노력했다는 의의가 있으나, 연구참여자들이 특정 소셜미디어에 편중됐을 수 있다는 점, 각각의 온라인 공간에 대한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점, 표본의 수가 적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다.

핵심어 : 남성 동성애자(게이), SNS, 인터넷 커뮤니티, 데이팅앱, 남성 동성애자의 사회적 관계

1. 서론

전자통신기술과 미디어의 발전·보급은 문화 다양성의 흐름을 이끌었다. 유례없이 빨라진 정보 전달 체계에 따라, 주류 사회 구성원의 보편적 가치와 다른 것을 지향하는 집단들이 표면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이전에도 존재했으나, 온라인 공간을 통해 집약하기 더욱 용이한 환경을 맞이했다. 국내에서도 인종, 국적을 넘어 성 정체성이나 장애, 종교 등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개인보다 집단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집단주의적 특성과(Markus & Kitayama, 1991) 사회의 변화보다는 안정성을 선호하는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어(Hofstede, 1991), 다양성 증진에 따른 진통을 겪기도 한다. 이는 주류 사회의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와 소수자 집단의 저항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은 다른 소수자 집단에 비해 월등히 강한 것으로 보고돼왔다. 한국행정연구원(2021)에서 2013~2018년 동안 진행한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동성애자는 집단으로 포용할 수 없는 정도가 전과자(63.41%) 다음으로 높았으며(51.61%), 장서연(2014)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들은 일상적으로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여러 조사에 따르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우울이나 자살사고 등 정신건강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주영·이아라·윤은희, 2020; 이호림, 2015; 정성조·이나영, 2018).

혐오적 시선으로 고립되온 국내의 성소수자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제한됨에 따라 특정 공간을 통해 교류해왔다. 그들은 수도권 내의 일부 지역구를 중심으로 술집, 노래방 등 유흥적 공간에 나타나 교류해왔는데, 이러한 성소수자의 사회적 관계형성은 온라인 공간이 활성화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이서진, 2007).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성소수자들은 직접 오프라인 공간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다른 당사자를 마주할 수 있는 장소가 생긴 것이다.

소셜미디어는 자기 정보를 선택적으로 노출하고 물리적 한계를 벗어나 타인과 교류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소셜미디어 내에서 자신과 동질적인 타인을 마주치기 쉬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황유선, 2013). 본인의 성적지향을 자율적으로 드러낼 수 있고, 특정 지역이라는 공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 당사자들을 선택적으로 교류할 수 있다는 점 등 성소수자에게 소셜미디어는 당사자들 간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큰 이점을 갖는다. 실제로 초기 인터넷이 발전하던 1990년 후반에 동호회 게시판을 시초로 현재는 SNS, 인터넷 커뮤니티, 데이팅앱 등 성소수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많은 소셜미디어로 발전했으며(강오름, 2015; 한유석, 2013) 여전히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의 이용은 사회자본의 형성과 연관이 깊고(금희조, 2011; Erickson, 2011) 사회적 지지나 외로움과 같은 정서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확인되기도 했다(진보래, 2022). 실제로 해외 연구들은 성소수자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사회자본(Berger et al., 2021; Harper et al., 2009), 사회적지지(Mustangin, 2018), 외로움(Escoba-Veira et al., 2018), 정신건강(Chan, 2023; Chong, Zhang, Mak, & Pang, 2015)과 관계가 있음을 밝혀왔다.

국내 성소수자에게도 소셜미디어는 사회적 관계와 연관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국내 성소수자들의 사회적 관계에서 소셜미디어가 어떠한 존재로 인식되는지, 이용에 따른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먼저, 어떠한 이유로 성소수자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로 교류하는지 인식을 확인함에 따라 당사자들에 대한 이해에 기여한다. 또한, 국내 성소수자들의 정신건강은 국민 평균에 비해 정신건강이 매우 취약한 편인데, 소셜미디어 이용은 이용자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Boulianne, 2015; Chan, 2023; Savci & Aysan, 2016). 당사자들에게 소셜미디어 이용이 정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확인된다면 향후에 정신건강 관련 연구로 확장될 잠재적 가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소수자의 소셜미디어 이용과 사회적 관계에 대해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위해 남성 동성애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했다. 남성 동성애자는 다양한 성적체성 및 성별정체성을 갖는 성소수자 전체를 대표할 수 없겠으나, 여러 차례 진행된 성소수자에 관한 대규모 조사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출현율이 매우 높았고(장사랑·손애리·조병희, 2014), 국내의 인터넷 발전 초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소셜미디어가 발전해왔다는 점에서(강오름, 2015; 이서진, 2007; 한유석, 2013) 풍부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집단이다. 현재의 탐색적인 단계에서는 다른 성적체성에 비해 연구하기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성소수자의 소셜미디어 이용과 사회적 관계에 관한 연구가 미비함에 따라 혼합연구로 진행했다. 혼합연구를 적용한 이유는 다수의 응답을 분석하여 보편적인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양적 방법과, 현상에 관한 맥락과 당사자의 인식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질적 방법을 결합하여 밀도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남성동성애자의 소셜미디어에 대한 기능적 기대(Affordance), 의미, 역할, 정서적 영향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두 번째 연구에서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표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소셜미디어 이용이 사회자본, 온라인 사회적지지 그리고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남성동성애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에 관한 이해를 증진하고 향후 연구

를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1) 남성동성애자의 당사자 사회적 관계와 소셜미디어

성소수자는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과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의 측면에서 소수자성을 띠는 인구집단”을 의미한다(이호림 등, 2022). 성소수자는 ‘1)시스젠더-이성애’라는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기준을 벗어난다는 이유로 사회적인 차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소수자라고 볼 수 있다(김상학, 2004). 과거와 비교하면 현재는 다양한 성적정체성이 가시화되고(정혜숙, 2021; 조윤희, 2022) 그에 따라 제도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과 낙인은 강하다(김정숙·전유림·김명찬, 2021; 원숙연, 2017; 이호림 등, 2022). 국내에서 여러 차례 진행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성소수자는 다른 사회적 소수자에 비해 사회적 거리감이 큰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났다(김상학, 2004; 류승아, 2017; 이정민·이동영, 2019; 주유선, 2022). 최근에 한국리서치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도 성소수자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갖는 응답자가 거의 절반을 차지했고(49%), 가족의 커밍아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빈도(42%)를 보였다(이소연, 2023). 아직까지 국내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성적정체성을 갖는 당사자들은 사회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기보다는 정체성을 숨기는 것을 선택하며 생활하고 있다(장서연 등, 2014; 정성조·김보미·심기용·한성진, 2021). 국내에서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일상에서 다른 성소수자를 만나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성소수자에 관한 담론은 1990년대 남성 동성애자를 중심으로 초기에 형성된 후에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등 각각의 논의가 지속해서 발전해왔다(장수아·남재일, 2022; 전원근, 2015; 정경운, 2002). 또한, 조윤희(2022)는 최초로 국내에서 무성애 지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는 등 성적지향에 관한 논의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 성적정체성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본 연구는 초기 담론을 형성했던 남성 동성애자에게 다시금 주목하

1) 시스젠더(Cisgender)란 태어날 때 지정받은 성별과 자신이 정체화하고 있는 성별 정체성이 일치한다고 느끼는 사람을 의미한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2).

고자 한다. 국내에서 성소수자에 관한 담론은 1980년대 동성애자를 중심으로 시작됐다(전원근, 2015). 전원근은 1980년대 성인용 주간 잡지인 「선데이 서울」에 나타난 동성애 담론과 남성 동성애자들의 경험을 분석했는데, 대중에게 초기에 확산된 성소수자에 관한 담론은 동성애자를 일탈적이고 HIV/AIDS를 전파하는 위험한 이들에 관한 것이었다. 초기 담론이었음에도 남성 동성애자들은 “변태”라는 지위와 ‘에이즈’를 전파하는 범죄자로서의 이미지”(전원근, 2015)의 낙인과 함께 대중에게 인식된 것이다. 임동현(2019)은 노년 게이 남성의 구술생애사를 분석했는데, 그들은 에이즈 담론을 통해 형성된 담론으로 인해 일상성의 재구성이 일어났다는 현상을 주목했다. 1990년대 이후에 출범한 성소수자 인권단체 활동이나 정부의 HIV/AIDS 감염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남성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려 노력해왔다. 그러나 남성동성애자는 여전히 혐오당하는 성소수자의 표상이다. 정치인들은 “(군대에서)합의에 의한 동성애는 처벌의 대상”이며 동성애자는 “에이즈의 주역”으로 “나라의 재앙”이라고 언급하며(김지경, 2021), 앞서 언급했던 한국리서치의 최근 성소수자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남성 응답자의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적대적 비율(54%)이 트랜스젠더(49%), 양성애자(44%), 레즈비언(42%) 등 다른 어떠한 집단보다 높다는 점에서 대중에게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실히 드러난다.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오프라인에서 정체성을 드러내기 제한됨에 따라 남성동성애자들은 일부 지역이나 장소에 모여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교류해왔다(강오름, 2015; 한유석, 2013). 이러한 장소들은 주로 바(Bar)나 클럽, 가라오케 등 대체로 사교적 성격을 가졌으며 서울과 같은 도심지에 주로 위치했다. 따라서, 많은 성소수자들은 한정된 오프라인 장소에 직접 찾아가서 다른 이들과 교류하는 사회적 관계의 패러다임이 존재했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패러다임은 1990년대 인터넷의 발전·보급으로 인해 변화를 맞이한다(이서진, 2007; 전원근, 2015). 기존에는 정보를 얻거나 다른 이들과 교류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특정 장소에 등장할 필요가 있었으나, 온라인이라는 공간이 등장함에 따라 반드시 오프라인 공간에서 교류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특히 남성동성애자의 경우 PC통신 보급 초기부터 활발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형성됐다. 천리안의 ‘동성애자 인권 모임방’은 초창기 온라인 커뮤니티는 등장 당시 남성동성애자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터전이 됐다(친구사이, 2019). 동성애자들에게 온라인 공간의 등장은 오프라인 공간의 쇠퇴를 이끌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다양한 오프라인 공간을 형성하고 활성화되는 역할을 하는 한편(한유석, 2013), 현재의 SNS, 인터넷 커뮤니티, 데이팅앱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초석이 됐다.

처음 용어를 사용한 크리스 쉬플리(Chris Shipley)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는 “인터넷 공간에서 대화를 용이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다. 소셜미디어를 이용한다는 것은 개인이 기호체계를

바탕으로 타인과 교류하는 정보를 생산하거나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셜미디어는 다른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다는 사회적 어포던스(affordance)를 제공한다(나은영, 2010; 나은영·나은경, 2015). 어포던스는 깁슨(Gibson, 1977)이 제시한 개념으로서 개인이 대상으로부터 어떠한 기능을 제공받을 것이라는 지각을 의미한다. 나은영과 나은경은 미디어 공간 인식과 프레즌스 인식에 대한 모델을 제시했다. 그들에 따르면 이용자는 미디어를 타인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어포던스로 지각하고, 미디어 공간에 진입하게 된다. 미디어 공간 안에서 타인의 프레즌스(Presence)를 느끼면서 자신의 마음을 할당하고 소통 또는 즐거움이 활발하게 이뤄진다. 앞서 제시한 모델을 남성동성애자에게 적용하는 경우 이성애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측면도 있으나 구분되는 점도 존재할 것으로 예측된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주요 기능은 오프라인에서 형성된 대인 관계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서(서문기·오주현, 2011), 사회적 관계의 유지에도 주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어포던스가 존재한다. 그러나, 남성동성애자들에게 오프라인에서 다른 당사자와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당사자들에게 소셜미디어는 온라인 공간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측면에서 어포던스가 강조될 수 있다. 즉, 이성애자에 비해 남성동성애자들에게는 다른 당사자와의 관계를 형성한다는 어포던스가 뚜렷하게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타인의 프레즌스에 대한 인식에서도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남성동성애자는 일상에서 다른 당사자를 마주하기 어렵지만 당사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공간에 진입한다면 손쉽게 만날 수 있다. 즉, 프레즌스를 느낄 것으로 기대하는 대상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특히, 연구자들이 “(사람이 존재한다는 인식) 서로 ‘연결’될 때, 또는 최소한 연결되었다고 지각될 때 큰 의미를 지니며,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경우 ‘소셜 프레즌스’로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나은영·나은경, 2015)고 언급했는데 당사자의 경우 ‘같은 성적지향을 갖는 타인의 존재’에게 느끼는 프레즌스이기 때문에 이성애자의 소셜미디어 이용경험과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해외에서 진행된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한다(Chan, 2023; Chong et al., 2015; Mustangin, 2018). 다양한 연구에서 성소수자 개인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다른 당사자가 존재하는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그들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Brandt & Carmichael, 2020), 연애 관계에 대한 욕구 충족을 원한다는 사실들이 밝혀졌다(Wu & Ward, 2018). 무스탄진(Mustangin, 2018)은 인도네시아에서 남성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이용경험에 관해 심층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연구결과 소셜미디어는 다른 당사자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밝혔다.

소셜미디어는 성적체성과 무관하게 이용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소수자 당사자의

사회적 관계에서 소셜미디어가 어떻게 인식되고 이용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국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즉, 남성동성애자의 경우에도 비성소수자인 타인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할 수 있겠으나, 동일한 성적체성을 갖는 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조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셜 미디어를 '사회적 관계 형성과 유지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로 정의'로 정의하고 'SNS, 인터넷 커뮤니티, 데이팅앱' 3가지로 구분했다. 기존의 남성동성애자에 대한 표집이 이뤄졌던 선행연구들(장사랑 등, 2014; 정성조 등, 2021)과 국내 성소수자 관련 자료를 수집한 사이트인 '한국퀴어아카이브'를 참고했을 때, 남성동성애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유형으로 판별됐기 때문이다. 직접 남성동성애자에 대한 키워드를 인터넷 포털에 검색하여 각각의 소셜 미디어를 확인했을 때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SNS의 경우 자기노출을 조절할 수 있으며, 텍스트와 이미지를 중심으로 타인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주류 SNS는 아웃팅이나 사이버불링과 같은 위험이 존재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경우 인터넷 카페나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가입하는 폐쇄형 사이트와 누구나 접근하여 익명으로 글을 남길 수 있는 개방형 사이트로 구분됐다. 데이팅앱은 종류가 다양했으며 이용자가 프로필을 만들고 휴대폰 위치를 기반으로 가까운 거리의 다른 남성동성애자와 연락을 나누거나, 게시판을 통해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앞선 논의를 종합하면 국내 남성동성애자에게도 소셜미디어는 당사자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에서 중요한 존재로 인식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조와 정용림(2022)의 청소년 성소수자에 관한 연구에서 당사자 청소년들에게 소셜미디어는 진입장벽이 낮고 다른 성소수자를 만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되며, 본인이 아닌 다른 성소수자들을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인식된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결과를 제외하면 국내에서 당사자들의 소셜미디어 이용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성 동성애자가 당사자들의 사회적 관계에서 소셜미디어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1: 남성 동성애자는 당사자들의 사회적 관계에서 소셜미디어(SNS, 인터넷 커뮤니티, 데이팅앱)를 어떠한 기능, 의미, 역할을 갖는 것으로 인식하는가?

2) 남성동성애자의 소셜미디어 이용과 사회자본, 온라인 사회적지지, 외로움

(1) 사회자본

선행연구들은 소셜미디어라는 공간이 개인이 단독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와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자본의 역할을 주목해왔다. 사회자본이란 개인과 개인, 개인과 네트워크의 관계에서 생성되는 상호작용과 그 결과를 의미한다(Putnam, 2000). 사회자본은 크게 연결형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과 결속형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연결형 사회자본은 집단 사이의 약한 유대를 의미한다면, 결속형 사회자본은 집단 안에서 강화되는 강한 유대를 의미한다. 소셜미디어의 이용은 대체로 사회자본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금희조, 2011; 김명혜, 2016; 이창호·정낙원, 2014). 특히 성소수자의 경우 소셜미디어 이용에 관한 기대가 소속될 수 있는 공동체를 찾거나(Chong et al., 2015), 다른 당사자와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Harper et al., 2009) 사회자본과 연관성이 깊다.

국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남성동성애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은 사회자본 형성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과 동료들(Chong et al., 2015)은 홍콩의 당사자 소셜미디어 이용 경험이 있는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소셜 미디어 이용 정도가 이용에 대한 충족은 물론 당사자 집단 소속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하퍼와 동료들(Harper et al., 2009)에 따르면 미국의 남성동성애자 및 양성애자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다른 당사자 또래와 관계를 형성하고 자기수용을 해왔다.

국내 남성동성애자의 경우에도 소셜미디어 이용이 사회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다른 국가에 비해 정보통신기술 보급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셜미디어에서 사회자본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다른 당사자의 정보를 읽는 것과 더불어 자기 노출을 통해 정보를 생산해야 타인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한국행정연구원, 2022) 비교적 은폐되어있는 소셜미디어라도 자기 정보를 노출하는 것이 꺼려질 수 있다(친구사이, 2014). 이러한 조건에 따라 남성동성애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은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사회자본을 형성하더라도 그것이 연결형 사회자본이나 결속형 사회자본 중 어떠한 종류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사회자본이 연결형인지, 결속형인지에 따라 이용의 영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금희조, 2010; Cronin & King, 2014).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2: 남성 동성애자 당사자들의 사회적 관계에서 소셜미디어(SNS, 인터넷 커뮤니티, 데이팅앱)이용은 사회 자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온라인 사회적지지와 외로움

소셜미디어 이용은 개인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으로 논의돼왔다(Boulianne, 2015; Cheng, Lau, Chan & Luk, 2021; Savci & Aysan, 2016). 소셜미디어 이용과 관계된 다양한 정서적 변인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사회적지지와 외로움에 대해 집중하고자 한다. 두 심리사회적 변인은 성소수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이나 주관적 행복, 정신건강 등과 깊은 연관을 갖고 연구돼왔기 때문이다(Chan, 2023; Escobar-Viera et al., 2018). 예를 들어 찬(Chan, 2023)은 성소수자의 소셜미디어 이용과 관련된 최근 연구들을 개괄하며, 소셜미디어 이용이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줄 수 있음을 실증했다. 그에 따르면 성소수자의 사회적 소셜미디어 이용은 집단 유대감을 형성하고 내재화된 낙인을 감소시키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소셜미디어에 이용에 대한 감정적 몰두(Emotional investment)는 외로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내재화된 낙인을 강화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동시에 나타났다.

먼저 사회적지지는 주변으로부터 안정을 얻거나, 애정을 받는다고 느끼는 등 정서적인 지지감과 정보적지지가나 도구적지지와 같은 다차원적인 구조를 갖는 개념이다(House, 1983). 하우스(1983)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안정감이나 애정을 받는 느낌 등의 정서적지지, 물질적인 자원을 직접 도와주는 물질적지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하거나 지식을 전달하는 정보적지지, 개인의 행위에 대한 평가와 인정을 제시하는 평가적지지 등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 국내에서는 박지원(1985)이 사회적 지지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하우스의 척도를 번안하여 타당화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됐다. 사회적지지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김영임, 2015; 홍구표, 2017; Meshi & Ellithorpe, 2021)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주목돼왔다. 예를 들어 신승배(2013)는 동성애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실증연구를 진행했으며, 분석결과 남성동성애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사회적지지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은경과 권정혜(2004)는 남성동성애자의 우울과 불안에 사회적지지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여, 사회적지지가 당사자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앞서 제시한 것처럼 사회적지지는 남성동성애자의 긍정적인 정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나,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 이용과 관련된 영역에 주목하기 위해 온라인 사회적지지

이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사회적지지 개념은 오프라인에서 맺어진 관계를 상정하여 발전한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나 온라인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곤 했다(김영임, 2015; Gruzd, Wellman, & Takheyev, 2011). 그러나, 소셜 미디어와 같이 온라인 공간을 통한 타인과의 관계는 익명성, 자기노출, 비언어적 단서 등의 고유한 조건들이 존재한다. 즉, 오프라인 관계에서의 사회적 지지를 온라인 관계에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닉 등(Nick et al., 2018)은 개인이 온라인 공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형성하는 사회적지지를 오프라인에서 형성하는 것과 구분할 필요성에 주목하며 온라인 사회적지지(Online Social Support, OSS) 척도를 개발했다. 온라인 사회적 지지는 “인터넷을 통해 친구, 가족 및 주변 사람들로부터 유형 및 무형의 도움을 받는 것”(Nick et al., 2018)을 의미한다.

온라인 사회적지지 척도를 국내에서 타당화한 김지연과 최승미(2021)은 온라인 사회적지지는 오프라인 사회적지지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여러 차이점이 존재함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오프라인에 비해 시공간적인 제약이 적고, 분절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또한, 익명성을 기반으로 행해지는 사이버 괴롭힘, 플레이밍과 같은 현상은 온라인 공간에서 겪을 수 있는 부정적인 사건으로서 사회적지지가 아닌 온라인 사회적지지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 닉 등(Nick et al., 2018)과 김지연, 최승미(2021)의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부정적 경험은 사회적지지의 경우 부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온라인 사회적지지는 정적인 상관이 일관되게 관찰됐다. 따라서, 온라인 공간에서 형성된 경험에는 온라인 사회적지지의 개념이 적용될 필요성이 강조된다.

한편 외로움은 “관계에 대한 욕구가 좌절 또는 결핍되었을 때 경험하는 공허함과 쓸쓸함 등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정서”(서영석·안수정·김현진·고세인, 2020)를 의미한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자 노력하지만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에 외로움은 누구나 쉽게 겪을 수 있는 정서다. 그러나, 해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깊어지는 외로움은 개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Erzen & Çikrikci, 2018). 특히,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일상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제약이 있는 성소수자는 이성애자에 비해 외로움을 더욱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Hu, Hu, Huang, & Zheng, 2016; Peterson, Lee, Svec, & Russell, 2023).

소셜미디어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해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겠으나(손영준·허만섭, 2020; 진보래, 2022), 기대에 비해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또한, 최근 연구들은 소셜미디어 이용이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들이 일관되게 보고되기도 했다(O'Day & Heimberg, 2021; Yavich, Davidovitch, & Frenkel, 2019) 그러

나,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당사자들에게는 소셜미디어 이용이 외로움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후와 동료들(Hu et al., 2016)은 동성애자, 양성애자로 구성된 집단과 이성애자 집단을 구분하여 삶의 만족도에 외로움과 자기존중감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이성애자 집단에서 외로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beta = -.30, t = -5.05, p < .001$)에 비해 성소수자로 구성된 집단에서 외로움이 미치는 영향($\beta = -.52, t = -9.99, p < .001$)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에스코바-비에라와 동료들(Escobar-Viera et al., 2018)은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을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소셜미디어 이용은 고립감이나 외로움의 영향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사이버불링(CyberBullying)과 같은 부정적 경험으로 우울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제시했다.

앞선 논의를 종합하면 남성동성애자에게 사회적지지는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주로 사회적지지를 형성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이용이 유사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 이용은 사회적지지보다는 온라인 사회적지지라는 개념을 통해 살펴볼 때 더욱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밝힌 소셜미디어 이용과 외로움의 복합적인 관계는 국내 남성동성애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남성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2014)에서 진행했던 인터뷰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동성애자에게 인터넷 커뮤니티, SNS등 소셜미디어는 사회적 관계의 기대를 충족하고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창구로 인식됐다. 또한, 응답자 중에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교류에서 출발하여 오프라인 동호회, 봉사활동 등 더욱 탄탄한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가 존재하는 국내 온라인 공간에는 성소수자 혐오표현이 즐비한 상황이다(고한솔, 2022). 심지어 2017년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장준규는 남성동성애자 군인 색출을 지시했고, 수사관들은 당사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데이팅앱에 들어가서 함정수사를 진행했고(군인권센터, 2017), 최근에는 당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나 데이팅앱에서 몸캠피싱이 유행하는 등(뉴시스, 2022) 소셜미디어를 통한 충족을 좌절시키는 외부요인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성 동성애자 당사자들의 사회적 관계에서 소셜미디어 이용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3: 남성 동성애자 당사자들의 사회적 관계에서 소셜미디어(SNS, 인터넷 커뮤니티, 데이팅앱)이용은 온라인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남성 동성애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에 관한 연구로서 선행연구가 전무함에 따라 탐색적 성격을 갖는다. 남궁미와 박정은(2020)은 학술지 및 학위논문 중 성소수자와 관련된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연구가 양적연구(58.3%)와 질적연구(29.8%)에 해당하며 혼합연구는 1건(1.2%)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분포를 보였다. 그들은 성소수자의 경험이 맥락과 분리해서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질적연구가 갖는 장점과 변인 간의 관계를 밝히는 양적 연구가 갖는 강점이 각각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목하며, 향후 연구에서는 혼합연구 방법론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필요성을 제기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을 확보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여러 지점을 생산하기 위해 본 연구는 혼합연구방법을 적용했다. 질적 분석을 위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양적 분석을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심층 인터뷰에서는 남성 동성애자에게 소셜 미디어가 사회적 관계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과 어떤 관계를 맺는다고 인식하는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통제변인들과 SNS, 인터넷 커뮤니티, 데이팅앱 등 소셜미디어 이용량, 사회자본, 온라인 사회적지지, 외로움 등 주요변인들에 대해 수집하고 SPSS21.0을 이용해 통계적 분석이 진행됐다.

연구대상자는 '①본인의 성별이 남성이면서, 동성애자로 정체화하고 ②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른 남성동성애자와 교류경험이 있는 ③성인'에 해당된다. 인터뷰 참여자 및 설문조사 참여자 모집은 기존에 진행됐던 선행연구를 참고하고, 검색어에 '게이', '이반', 'Gay' 등을 넣어 검색했을 때 남성동성애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인터넷 커뮤니티, 데이팅 앱, SNS를 통해 진행됐다. 연구대상자가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구에 앞서 서강대 생명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SGUIRB-A-2301-02). 특히 사례지급을 위해 수집된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는 모두 암호화하여 압축됐으며 암호화된 가상드라이브 프로그램(Wise Folder Hider)에 저장하여 이중으로 보안을 유지했다.

4. 연구 I : 심층 인터뷰

1) 자료수집방법 및 참여자 특성

남성동성애자들이 서로 교류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어떠한 역할과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심층 인터뷰가 진행됐다. 또한, 인

터뷰에서 남성동성애자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지나 외로움과 같은 정서적인 부분과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는지 확인해서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자료분석 해석에 참고하고자 했다. 질문지는 소셜미디어 이용 계기, 경험과 인식에 대한 부분들을 반구조화하여 구성됐다.

연구참여자는 앞서 언급한 SNS, 인터넷 커뮤니티, 데이팅앱 등을 통해 2023.02.03. ~02.04 기간 동안 모집됐다. 모집 당시 연구참여자 선별을 위해 연령, 이용 시작 년도, 이용하고 있는 소셜미디어의 종류, 하루 평균 이용량 등에 대해 사전설문을 받았으며 풍부하게 응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했다. 인터뷰는 연구참여자가 원하는 장소로 연구자가 찾아가서 진행했으며 스튜디오, 룸카페 등 외부와 차단된 장소를 예약하거나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카메라를 끄고 진행됐다. 연구참여자들은 시작하기에 앞서 연구에 대해 다시한 번 설명을 듣고 동의하겠다고 확인한 뒤 인터뷰는 진행됐으며 사례로 30,000원을 지급받았다.

심층 인터뷰 참여자는 총 8명으로 연령 평균은 32.7세로 최소 20세부터 최대 63세까지 넓은 범주로 구성됐다. 다른 남성동성애자와 교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셜미디어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조사했을 때 국내에서 스마트폰이 활발하게 보급되기 시작했던 2010년 이후의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촉이 어려워진 2020년 이후에 시작한 이들도 있었다. 이용중인 소셜미디어의 경우 SNS, 인터넷 커뮤니티, 데이팅앱 중에서도 특정 온라인공간들이 일관되게 등장했다. 이러한 온라인공간들은 선행연구에서도 주로 언급됐던 곳으로서, 남성동성애자들에게 주로 이용되는 특정 미디어(예, SNS T, 인터넷 커뮤니티I, 데이팅앱J 등)가 존재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Table 1. Participants

Code	Age	Year of Use	Using ²⁾ Social Media
A	45	2000	Community I, Dating App J, B
B	63	2013	SNS T, Community I, Dating App B
C	32	2011	SNS T, I, Community I, Dating App J, T, J, 9
D	24	2012	SNS T
E	27	2016	SNS T, F, I
F	30	2022	SNS T, Community I, Dating App J, B, T, G
G	20	2020	SNS T, Dating App J, B, T, D
H	21	2018	SNS T, I, Dating App J

2) 논문에서는 인터뷰나 설문조사에 언급되는 소셜미디어의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해당 온라인 공간의 정보가 노출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아웃팅(Outing, 성소수자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이 공개하는 것)의 위협이 될 수 있으며, 공간에 대해 사회적 낙인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해당 정보가 필요한 경우 1저자에게 메일로 요청하면 확인 후 제공할 것이다.

2) 분석결과

(1) 소셜미디어의 어포던스(affordance)

인터뷰 결과 남성동성애자들에게 소셜미디어는 공통된 어포던스를 갖는 한편,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데이팅앱 각각의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소셜미디어의 공통된 어포던스는 본인의 성정체성과 동일한 이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소셜미디어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물었을 때, 응답자들은 대체로 본인의 성정체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다른 남성동성애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이용하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이 낮고 이성애 중심적인 우리 사회에서 남성동성애자는 본인이 남들과 다르다는 이질감이나 고립감을 느끼기 쉽다. 그들이 모여 있는 소셜미디어는 본인 말고도 다른 동성애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해주며, 이질감이나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고등학교 때 포털사이트 카페를 통해 처음 이용했던 거 같아요. 그걸 통해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보이지 않는 내용이나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악이다 그런거 빼고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연애를 하고 다니지 그런 것도 보고 질문게시판에 시시콜콜한 내용이라던지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용했던 것 같아요.” (인터뷰 참여자 C)

“초등학교 때 정제회를 하고 나서 ‘나만 이런건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제일 먼저였던 거 같아요. 나랑 비슷한 남성동성애자들이 더 있다는 거를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찾기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었고 찾다 보니까 SNS에서 조그맣게 그런 네트워크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인터뷰 참여자 D)

소셜미디어의 유형에 따라 구별되는 어포던스는 SNS의 경우 관계적인 부분, 인터넷 커뮤니티의 경우 소통과 정보의 부분, 데이팅앱의 경우 성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SNS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데이팅앱에 비해 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확장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확장하는 방식은 개인이 일상이나 생각을 담아 글을 작성하면, 다른 이들이 이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었다. 또한, 꼭 온라인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확장하기보다는 오프라인에서의 다른 성소수자 지인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경우 남성동성애자와 관련된 주요 정보들을

모아서 제공하거나, 게시판 및 채팅방 등을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했다. 일부 커뮤니티는 지역별 게시판이 있어서 이용자들끼리 즉석만남도 활발하게 이용된다고도 하였다. 데이팅앱의 경우 다른 남성동성애자와 직접적인 만남의 경로로 언급됐으나, 이는 상호합의하에 이뤄지는 성적인 접촉과 연관성이 컸다. 참여자들에 의하면 데이팅앱에서 만난 다른 이가 사회적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데이팅 어플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하등 쓸모가 없는 것 같고요. SNS를 사용했을 때 사람들한테 사람들한테 많이 보이는 사람이 생기고, 또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생기고 그런 느낌이거든요.” (인터뷰 참여자 E)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인터넷 커뮤니티. 거기서 동성애자들의 뉴스라던가 그런 부분도 많이 보고 있구요. 일반인들에게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런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이 아닌 동성애자로 살아가면서 답답한 부분이라던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인터뷰 참여자 A)

“확실히 데이팅 어플 같은 경우에는 성관계를 원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즉각적인 성적인 만남에 가깝고 SNS는 속하고 싶은 부류에 속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 크게 다른 것 같아요.” (인터뷰 참여자 G)

이러한 어포던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종합하면, 남성동성애자들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관계는 SNS에서 주로 이뤄진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SNS는 개방된 온라인 공간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다른 남성동성애자의 존재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메시지를 교환하는 등 사회적 관계에 용이한 기능들을 제공한다. 또한, SNS는 개인이 자기노출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기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남성동성애자들에게 다른 소셜미디어에 비해 SNS에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2) 소셜미디어가 사회적 관계에서 갖는 의미와 역할

남성동성애자의 사회적 관계에서 소셜미디어는 ‘반(半)필수적인 연결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소셜미디어는 개개인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으로서, 인터넷 공간에서 다른 누군가와 연

결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성정체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소셜미디어는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남성동성애자에게 소셜미디어는 다른 이들과 연결되기 위해 어느정도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후반에 남성동성애자들의 인터넷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지금까지 발전함에 따라 지금은 다양한 소셜미디어들이 등장했다. 오프라인에서 특정 공간을 중심으로 성소수자들이 집결하게 되는 현상은 온라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소셜미디어라는 온라인 공간도 특정 채널에서 사람이 많을수록 더욱 많아지는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남성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주로 이용되는 SNS, 인터넷 커뮤니티, 데이팅앱에서는 타인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으며, 교류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 온라인 공간으로 보인다.

“저희들에게 있어서 거의 유일하게 나와 입장이 같다는 것을 알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오픈 쿼어로 살면서 사람들을 만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더 매달리게 되는 것 같아요.”(인터뷰 참여자 D)

“하나의 공간 같다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성소수자)동아리의 신입생이 점점 줄고 있거든요. 쿼어 동아리가 생겼던 이유는 서로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모여서 만남을 이어가려고 만들어진건데, 요새 들어서는 소셜미디어가 확장이 되니까 굳이 동아리에서 모이지 않아도 충분히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인터뷰 참여자 E)

“자신의 정체성을 디나이얼(성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로 살아가지 않을 거면은 거의 필수적으로 여겨지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다 기본적으로 소셜미디어에서 이미 알고 있던 사이인데 오프라인에서 무작정 들어간다는 게 허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인터뷰 참여자 H)

또한, 남성동성애자들에게 소셜미디어는 성정체성을 편하게 드러내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자, 오프라인 만남을 위한 가교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소수자에 대한 포용력이 낮고, 이성애중심적인 국내 사회에서는 남성동성애자가 자연스럽게 다른 남성동성애자를 만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남성동성애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셜미디어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남성동성애자로 정체화한 이들이 모여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편하게 본인의 성정

체성을 드러내고 교류할 수 있다. 물론, 온라인 공간에서도 아웃팅의 위협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모든 남성동성애자들이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고 단언할 순 없다.

남성동성애자들에게 소셜미디어는 온라인에서 소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지는 역할도 수행했다. SNS의 경우 평소에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친분을 쌓다가 약속을 잡아서 만나다거나, 개인이 어떤 장소를 방문할 때 근처에 있는 다른 지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데이팅앱은 대부분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용됐으며, 이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설계됐었기 때문에 남성동성애자들이 서로 만나기에 용이한 수단이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지역별로 구분돼있는 게시판이 활성화돼있고, 정기적인 모임이 개최되기도 했다.

“보통의 이성애자 같은 경우에는 회사나 학교에서 소셜 미디어 없이 이런 게 가능한데, 남성 동성애자나 다른 성소수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모임이 있어야지만 관계가 형성되고, 커밍아웃을 엄청나게 오픈하고 있는 사회 집단이 아니라면 불가능할테니까..”(인터뷰 참여자 C)

“일단은 서로 만나야 연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고 데이팅 어플이나 SNS나 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랑 연애도 하고 다른 만남도 갖고 이런 걸 보면 소셜미디어가 있고 없과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인터뷰 참여자F)

“포털사이트 카페같은 데도 보면은 정기적인 모임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술마시고 놀고 같이 어울리고 미팅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그리고 그게 또 지역별로 이렇게 모여요. 특정 지역에서 모이면 그 주변까지 다 포함해서...”(인터뷰 참여자 B)

한편,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과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들 사이에 소셜미디어의 의미나 역할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줬다.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거나, 오프라인 만남을 갖기 용이한 수단인 반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더라도 적극적인 만남을 갖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지역에서는 성소수자와 관련된 공간이 거의 없고, 인구도 적기 때문에 다른 남성동성애자와 교류하기도 어렵다. 수도권, 특히 서울은 남성동성애자와 관련된 시민단체, 기관, 술집이나 카페 등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더욱 갖춰져있으며 인구도 상대적으로 많

아서 취향에 따라 교류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피상적으로 이용했거나, 서울에 대한 동경을 품게 됐다고도 하였다.

“제가 사는 곳이 지방이다보니까 숨어 지내는 동성애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만남이 좀 힘들거나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부분이 많고 그렇습니다.” (인터뷰 참여자 A)

“같은 지역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다 서울에서 이루어지니까. 이 사람과 나랑 SNS에서 친한데 난 못 가고 이런 행사가 서울에서 있는데 나는 못가고 이렇게 누적이 되다보니 결국에는 입시생이 됐을 때 내가 서울로 올라가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강화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지방은 막말로 사람이 거기서 거기고 하나 건너면 다 아는 사이다 그럴 정도로 적으니까 제약이 있으니까.” (인터뷰 참여자 H)

(3) 소셜미디어의 이용과 온라인 사회적지지, 외로움의 관계에 대한 인식

연구참여자들은 남성동성애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온라인 사회적 지지와 대체로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는 안정감과 연관이 큰 것으로 인식했다. 소셜미디어에서 본인을 제외한 다른 남성동성애자의 존재를 확인하고 교류함으로써 개인은 안정감을 크게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안정감은 성정체성이 다른 이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것에 대해 털어놓고, 공감해주는 과정을 통해 더욱 튼튼해졌다. 그러나, 일부 연구참여자는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해 스스로를 검열하게 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겪기도 했다.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나서부터 정서적으로 안정이 됐었는데 그 이유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내 경험을 나눌 사람이 없잖아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지지를 해줄지도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나의 경험을 나누기가 어려운데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면 텍스트라고 할지라도 그런 경험들을 나눌 수 있고, 공감받을 수 있고, 평범한 사람들처럼 고민을 나눌 수 있다는게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인터뷰 참여자 G)

“저는 되게 긍정적인 지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나와 같은 사람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네 이러면서 유사성에서 안정감 같은게 생기지 않나 생각해요.” (인터뷰 참여자 C)

“안에서 느끼는 소속감들도 있고 덕분에 외로움도 느끼지는 않았지만, 소속감을 얻기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이 커뮤니티 안에서 괜찮은 사람이고 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검열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인터뷰 참여자 D)

참여자들은 남성동성애자의 소셜미디어 이용과 외로움의 경우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과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인식이 공존했다. 외로움은 개인과 타인의 관계에 대해 인식함에 따라 형성되는 감정이다. 남성동성애자들에게 소셜미디어는 다른 공간에서 채우기 어려운 사회적 관계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대되며, 실제로 외로움을 해소하기 용이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소셜미디어에서 관계적인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는 경우 오히려 외로움은 더욱 강해질 수 있고 이는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로움을 해소하는 건 주된 목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동성애자나 성소수자들이 친밀한 관계에 의존하는 정도나 거기(소셜미디어)에서 외로움을 해소하는 정도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소셜미디어는 내가 드러내고 싶은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고, 연애도 하고, 섹스도 할 수 있으니까 외로움을 해소하기 편하죠.” (인터뷰 참여자 F)

“외로움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해요. SNS라고 했을 때 SNS마다 주된 분위기와 경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커뮤니티에 들어갔는데 내가 맞지 않으면 그거는 내가 이성애자 사회에 있던 거와는 또 다른 이질감을 줄 수도 있을 거라 생각 하거든요. 적응을 잘하면 외로움 타파에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적응을 못하는 경우엔 그때는 진짜 개인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경우가 되는 거죠.” (인터뷰 참여자 H)

5. 연구 II: 온라인 설문조사

온라인 설문조사는 남성동성애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에 대한 양상을 파악하고 사회 자본, 사회적 지지, 외로움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참여자 모집은 2023.02.10. ~ 2023.02.13. 기간에 이뤄졌으며 인터뷰에서 표집한 곳과 동일한 SNS, 인터넷 커뮤니티, 데이

팅앱 등을 통해 진행됐다. 조사참여자는 보상으로 커피 기프티콘을 지급받거나 남성동성애자 인권운동 단체에 기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다. 총 145명이 표집됐으나 남성동성애자가 아니라고 응답하거나, 소셜미디어를 이용해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이들을 제외하고 총 140명의 응답을 분석에 활용했다.

1) 측정도구

(1) 소셜 미디어 이용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 이내에 시행됐던 성소수자 관련 대규모 설문조사와, 성소수자 관련 온라인 아카이브자료 등을 참고해 남성동성애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셜미디어로 SNS, 인터넷 커뮤니티, 데이팅 앱 3가지를 선정했다.

소셜 미디어 이용에 관한 문항은 SNS 3종류, 인터넷 커뮤니티 5종류, 데이팅앱 5종류를 각각 제시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부터 ‘매우 자주 사용한다’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했다. 또한, 설문에 포함되지 않은 소셜미디어는 ‘기타’항목으로 측정하여 연구참여자가 직접 입력하고 이용량을 응답할 수 있도록 했다. 소셜 미디어 별로 이용량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SNS, 인터넷 커뮤니티, 데이팅앱 각각의 응답은 제곱근 값의 평균으로 계산해 분석에 활용했다.

(2) 사회자본

선행연구들은 소셜미디어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한 미디어라는 점을 주목하여 소셜미디어 이용과 사회자본과의 연관성에 주목해왔다(금희조, 2011; 김명혜, 2016; 이창호·정낙원, 2014). 사회자본은 연결적(bridging) 사회자본과 결속적(bonding) 사회자본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논의돼왔다(금희조, 2010; Putnam, 2000).

연결적 사회자본과 결속적 사회자본은 이창호와 정낙원(2014)의 연구를 참고했으며 각각 4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연결적 사회자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회문제에 관한 다양한 해석과 설명을 접할 수 있다.’ 등 4문항이며 결속적 사회자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사람 중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사람 중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등 4문항이다.

베리맥스 회전을 25회 적용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아이겐값이 1이상인 요인들을 기준으

로 판단했을 때 선행연구와 동일한 문항들이 각각 연결적 사회자본과 결속적 사회자본으로 구성됐다(KMO표본 적합도 = .872, 누적 분산비율 = 76.5%)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α 를 계산해본 결과 연결적 사회자본은 .875, 결속적 사회자본은 .908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3) 온라인 사회적지지

온라인 사회적지지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친구나 가족, 유사한 직업이나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유형의 지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House, 1983; Nick et al., 2018; 김지연·최승미, 2021 재인용). 김지연과 최승미(2021)는 한국판 온라인 사회적지지 척도의 타당화 연구를 진행했으며, 연구 결과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됨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그들의 연구에서 공통성 및 요인부하량이 높았고 본 연구에 적합한 문항들을 선별하여 각 요인별 3개의 문항으로 측정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정서/존중지지, 사회동반지지, 정보지지의 모든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됐으며, 물질적지지는 독립적인 요인으로 구성됐다(KMO표본 적합도 = .892, 누적 분산비율 = 67.3%). 이는 소셜미디어가 상호작용성이 용이하고 다른 사람과 교류에 대한 어포던스(affordance)가 높다는 특성에 의해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정서/존중지지, 사회동반지지, 정보지지가 포함된 요인은 개인에게 긍정적인 태도로 전반적인 지지를 한다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동반자적 지지’로 명명했다.

물질적 지지는 ‘온라인에서 사람들은 내 학업이나 업무를 도와준다’ 등 3문항이며, 동반자적 지지는 ‘온라인에서 사람들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나에게 관심을 가진다’, ‘온라인에서 사람들은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것들에 대해 말해준다’, ‘온라인에서 사람들은 나에게 소속감을 느끼게 해준다.’ 등 9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했다. 각 요인의 Cronbach's α 는 .827, .924로 높은 수준이다.

(4) 외로움

외로움은 “관계에 대한 욕구가 좌절 또는 결핍되었을 때 경험하는 공허함과 쓸쓸함 등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정서”(서영석 등, 2020)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외로움은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의 외로움을 조사했던 임명성(2020)의 방법을 참고했으며 ‘사람들과 가깝다고 자주 느낀다.(역코딩)’ 등 5개의 역코딩 문항과,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자주 느낀다.’ 등 6문항으로 총 12 문항으로 측정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2개의 요인으로 도출됐으며 역코딩됐던 문항들과, 그렇지 않은 문

항들로 구분됐다(KMO표본 적합도 = .892, 누적 분산비율 = 67.3%). 두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 사이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설문조사에 역코딩 여부가 응답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고길곤과 동료들(2015)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더라도 긍정문과 부정문의 형태에 따라 요인이 별개로 형성될 수 있고 이를 해석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두 요인이 독립적인 요인인지 혹은 하나의 개념이 역코딩문항을 이용함에 따라 별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분석을 진행했다. 선행연구에서 연관성이 높은 요인으로 지적된 사회자본, 사회적지지등의 요인과 상관분석을 진행한 결과, 역코딩됐던 문항들로 구성된 요인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역코딩되지 않은 문항들로 구성된 요인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역코딩됐던 문항들로 구성된 요인이 외로움이라는 개념을 적절히 측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분석에 활용했다. 외로움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Cronbach's α 는 .89로 높은 수준이었다.

(5) 기타 변인 : 인구통계학적 정보, 인간관계 내 남성동성애자 비율, 커밍아웃 정도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연령, 거주지역, 학력, 종교 등을 측정했으며 응답자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인간관계 내 남성동성애자 차지 비중, 소셜미디어 계정 내 커밍아웃 유형 등을 측정했다. 인간관계 내 남성동성애자 차지 비중은 없음부터 많음까지 0~10으로 측정했으며, 소셜미디어 계정 내 커밍아웃 유형은 평소에 주로 이용하는 소셜미디어에서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지 묻고 '전혀 드러내지 않음, 일부에게만 드러냄, 모두에게 드러냄, 정체성을 드러내는 별도의 계정을 사용' 등으로 측정했다. 거주지역의 경우 인터뷰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른 차이에 대한 의미가 발견됐기 때문에 수도권을 0으로, 비수도권을 1로 더미변수화 하여 분석에 활용했다. 또한, 종교의 경우 국내에서 성소수자에 관한 주요 담론에 기독교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김나나와 권수영(2021)은 성소수자의 정체성 형성과정에 종교가 미치는 영향을 당사자들의 생애사로 분석했고, 기독교인인 당사자는 종교가 정체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따라서, 종교의 경우 카톨릭, 개신교 등 기독교인 경우를 0으로, 다른 종교인 경우를 1로 더미변수화했다.

2) 분석결과

(1) 응답자 특성 및 상관분석 결과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29.2세($SD = 6.08$)였으며 거주 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이

들이 72.1%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대학교 재학/졸업인 경우가 61.4%, 종교는 없는 경우가 64.3%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소셜미디어 계정 내 커밍아웃 유형은 일부에게만 드러내는 경우(35%), 정체성을 드러내는 별도의 계정을 운영하는 경우(27.1%), 성정체성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경우(21.4%) 등으로 나타났다. 인간관계 내 남성동성애자 차지 비중은 평균 5.16($SD = 2.47$)으로 절반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의 주요 결과는 <표 2>와 같다. 연령은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량과 약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r = .18, p < .05$), SNS이용량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r = -.26, p < .05$). 또한, 사회자본, 온라인 사회적 지지와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변환한 더미변수의 경우 SNS이용량과 유일하게 부적인 상관이 있었는데($r = -.23, p < .05$), 응답자들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이 SNS이용량과 정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독교를 기준으로 투입된 더미변수의 경우 다른 변인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SNS이용량은 사회자본, 온라인 사회적 지지와 정적 상관관계인 반면 외로움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량은 연결형 사회자본과 동반자적 지지에 부적인 상관이 있었으며, 데이팅앱 이용량은 주요변인 중 외로움에 대해서만 부적인 상관이 나타났다. 사회자본과 사회적지지는 서로 높은 정적상관을 보이고 외로움과는 부적인 상관을 맺고 있었다.

Table 2.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of Major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 Age	1										
2. Local(0=Metro 1=Non-metro)	-.11	1									
3. Religion(0=Christian 1=non-Christian)	-.04	.05	1								
4. SNS usage	-.26**	-.23**	-.08	1							
5. Internet community usage	.18*	-.01	.01	-.08	1						
6. Dating app usage	-.14	-.06	-.01	.24**	.31**	1					
7. Bridging social capital	-.16*	-.07	-.03	.29**	-.22**	-.05	1				
8. Bonding social capital	-.19*	-.05	-.00	.28**	-.15	-.06	.63**	1			
9. Material support	-.18*	-.09	-.11	.30**	-.01	.11	.48**	.56**	1		
10. Companion support	-.26**	-.12	-.03	.29**	-.22**	.06	.71**	.73**	.67**	1	
11. Loneliness	.11	.09	.04	-.25**	-.04	-.18*	-.41**	-.53**	-.42**	-.62**	1

* $p < .05$, ** $p < .01$

상관분석만으로는 소셜미디어 이용과 사회자본, 온라인 사회적 지지, 외로움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를 해석하기 제한된다. 따라서, SNS이용량,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량, 데이팅앱 이용량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사회자본, 사회적 지지, 외로움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는 회귀분석을 진

행했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연령은 종속변인들과 대체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기 때문에 통제변인으로 투입됐다.

(2) 남성 동성애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남성동성애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위해 소셜미디어 이용량과 연령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연결형 사회자본과 결속형 사회자본이 종속변인으로 투입된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했다. 분석결과 연결형 사회자본과 결속형 사회자본 모두 SNS이용량이 유일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량이나 데이팅앱 이용량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다른 남성동성애자와 교류하기 위해 SNS를 이용할수록 사회자본의 형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나 데이팅앱의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SNS 이용량의 베타값은 연결형 사회자본의 경우 .26($p < .01$), 결속형 사회자본의 경우 .27($p < .01$)로 유사한 수준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he Effects of Gay Men's Social Media Use on Social Capital

	Bridging social capital			Bonding social capital		
	β	$t(p)$	VIF	β	$t(p)$	VIF
(Constant)		3.92**			2.96**	
Age	-.08	-0.94	1.18	-.13	-1.48	1.18
Local Dummy (0=Capital area)	-.02	-0.28	1.10	-.01	-0.10	1.10
Religion Dummy (0=Christian)	-.01	-0.19	1.01	.01	0.16	1.01
SNS usage	.26	2.99**	1.24	.27	3.05**	1.24
Internet Community usage	-.15	-1.80	1.19	-.06	-0.76	1.19
Dating app usage	-.08	-0.93	1.23	-.12	-1.39	1.23
F	3.45**			3.12**		
adj. R^2	.09			.08		
Durbin-Watson	2.17			1.99		

* $p < .05$, ** $p < .01$

(3) 남성 동성애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온라인 사회적지지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남성동성애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온라인 사회적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했다. 각각의 소셜미디어 이용량과 연령이 독립변인으로 투입됐으며, 물질

적지지와 동반자적지지가 각각 종속변인으로 투입됐다. 물질적 지지의 경우 연령, 수도권 거주여부, 기독교 여부 등 통제변인과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량, 데이팅앱 이용량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SNS이용량은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beta = .24, p < .01$). 동반자적 지지의 경우 수도권 거주여부, 기독교 여부와 데이팅앱 이용량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연령, SNS이용량,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량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높을수록 동반자적 지지는 낮아졌으며($\beta = -.18, p < .05$), SNS이용량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beta = .19, p < .01$), 커뮤니티 이용량은 부적적인 영향을 미쳤다($\beta = -.19, p < .05$).

Table 4. The Effects of Gay Men's Social Media Use on Online Social Support

	Material support			Companion support		
	β	$t(p)$	VIF	β	$t(p)$	VIF
(Constant)		0.95			4.91**	
Age	-.13	-1.51	1.18	-.18	-2.08*	1.18
Local Dummy (0=Capital area)	-.04	-0.52	1.10	-.09	-1.11	1.10
Religion Dummy (0=Christian)	-.09	-1.12	1.01	-.01	-0.19	1.01
SNS usage	.24	2.72**	1.24	.19	2.21*	1.24
Internet Community usage	-.03	0.35	1.19	-.19	-2.21*	1.19
Dating app usage	.02	0.23	1.23	.04	-0.51	1.23
F	2.95**			4.29**		
adj. R^2	.07			.12		
Durbin-Watson	2.31			2.19		

* $p < .05$, ** $p < .01$

(4) 남성 동성애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소셜미디어 이용량과 연령을 독립변인으로, 외로움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회귀모델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F값이 유의하지 않았으므로($p > .05$) 독립변인들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SNS이용량이 외로움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beta = -.20, p < .01$), 적합성이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통제변인과 SNS, 인터넷 커뮤니티, 데이팅앱 등 소셜 미디어의 이용은 외로움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Table 5. The Effects of Gay Men's Social Media Use on Loneliness

	Loneliness		
	β	$t(p)$	VIF
(Constant)		4.43**	
Age	.06	0.67	1.18
Local Dummy (0=Capital area)	.04	0.51	1.10
Religion Dummy (0=Christian)	.02	0.34	1.01
SNS usage	-.20	-2.18**	1.24
Internet Community usage	-.03	-0.03	1.19
Dating app usage	-.10	-1.17	1.23
F		2.06	
adj. R^2		.05	
Durbin-Watson		2.11	

* $p < .05$, ** $p < .01$

6.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남성동성애자가 당사자들의 사회적 관계에서 SNS, 인터넷 커뮤니티, 데이팅앱 등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고 이용에 따른 사회자본과 정서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고자 진행됐다. 아직까지 관련된 국내 연구가 미비하므로 혼합연구를 적용했으며, 인터뷰를 통해 소셜미디어에 대한 기능, 의미, 역할 인식을 알아보고 온라인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소셜미디어 이용에 따른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남성동성애자 당사자들의 사회적 관계에서 소셜미디어에 대한 인식은 기능, 의미, 역할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기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소셜미디어의 공통적인 어포던스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외 선행연구에서 진행된 연구와 일치한다(Brandt & Carmichael, 2020; Muntangin, 2018). 즉, 한국 남성동성애자에게도 소셜미디어는 다른 당사자를 마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인 담론과 인식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소셜미디어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교류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된다. 성적 지향인 당사자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로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안전하게 서로를 확인하고 유대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소셜미디어의 이용계기에 대한 응답에서 정체체성을 정체화하는 과정에서 소셜미디어를 찾게 됐다는 응답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정혜숙(2021)에 따르면 성소수자 당사자들은 정체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하고, 남들에게 알리고 싶은 인정의 욕구'를 갖는 단계를 거친다. 소셜미디어는 남성동성애자에게 이러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한편,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그리고 데이팅앱은 각각 별개의 어포던스를 가졌는데, 사회적 관계의 측면에서 주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소셜미디어는 SNS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나 데이팅앱을 통해서도 만남을 가질 수는 있지만 사회적 관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경우 남성동성애자와 관련된 소식, 업체, 지역 모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어포던스가 존재했다. 선행연구와 인터뷰에서 남성동성애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지목된 인터넷 커뮤니티(E)에 실제로 접속해보면 '퀴어뉴스', '커뮤니티', '인기상품', '지역만남'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영과 동료들(Young, Cumberland, Singh, & Coates, 2022)에 따르면 인터넷 커뮤니티는 남성동성애자의 건강증진행위에 기여하기도 했다. 국내 남성동성애자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도 정보의 어포던스가 존재하므로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공간의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남성동성애자에 대한 건강과 관련된 담론이 HIV/AIDS에서 코로나19, 엠폭스 등 감염병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윤유경, 2023; 이희영·정다울·정성조, 2021) 당사자들의 건강과 공중보건 증진에 긍정적인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데이팅앱의 경우 타인과 성관계에 대한 어포던스가 주로 존재했다. 데이팅앱은 단말기 위치로부터 가까운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선행연구들은 남성동성애자에게 데이팅앱을 통한 커뮤니티케이션이나 성관계에 관해 주목해왔다(Jaspal, 2017; Roth, 2016; Wu & Ward, 2018). 블랙웰(Blackwell et al., 2015)은 남성동성애자가 주로 이용하는 데이팅앱이 위치 기반이라는 기능을 제시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성적 만남을 촉진한다고 했다.

다음으로 남성동성애자에게 소셜미디어가 사회적 관계에서 갖는 의미와 역할을 확인했다. 남성동성애자에게 소셜미디어가 갖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 분석한 결과, 소셜미디어는 당사자들의 사회적 관계에 어느정도 필수적인 존재인 것으로 보였다. 알드리치(Aldrich, 2004)에 따르면 예로부터 동성애자의 정체성은 공간의 규모가 작은 곳보다 큰 곳에서 더욱 활발하게 표출되었다. 국내의 경우에도 남성동성애자들에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유리한 공간은 인구수가 많고, 관련된 공간도 다양하게 존재하는 수도권이다. 소셜미디어는 남성동성애자들에게 물리적 제약을 벗어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용이한 공간을 제공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비되고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소셜미디어가 당사자들의 물리적 제약없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됨과 동시에 남성동성애자들이 주로 모이는 오프라인 공간을 더욱 밀집시키고 있었다. 지역에서 거주했던 경험이 있다고 밝힌 연구참여자들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더라도 다른 이들을 만나기 제한되며,

수도권의 밀집된 환경을 동경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즉, 성소수자에게 교류를 위한 공간으로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본질적이고 대립적인 역할을 한다기보다 상호보완적으로 서로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남성동성애자 당사자들의 사회적 관계에서 소셜미디어 이용이 심리사회적 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다른 남성동성애자와 교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SNS, 인터넷 커뮤니티, 데이팅앱을 이용하는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이 사회자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연결형 사회자본이든 결속형 사회자본이든 SNS이용량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데이팅앱의 경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심층 인터뷰에서도 SNS를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고 언급된 점을 고려했을 때, 남성동성애자들에게 다른 이들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는 다른 소셜미디어보다 SNS가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SNS는 익명성을 스스로 조절하고 타인과 시간적 거리를 두고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다(이석용·정이상, 2010). SNS에서는 자신의 프로필을 중심으로 타인과 친밀감을 쌓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회적 관계 형성에 용이한 측면이 있다. 인터뷰에 따르면 남성동성애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데이팅앱은 지역이나 거리를 기반으로 다른 남성동성애자와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 형성에 용이하고, 대면 만남으로 이어지기에는 SNS보다 용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가 사회자본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각각의 소셜미디어가 갖는 어포던스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교류하는 것은 SNS를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지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나 데이팅앱은 다른 어포던스를 갖는 것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또한 인터뷰에서는 응답자의 거주 지역이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 여부에 대한 중요성이 발견됐으나 더미변수로 투입했을 때 사회자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남성동성애자의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소셜미디어 이용이 온라인 사회적지지, 외로움과의 어떤 관계를 갖는다고 인식되는지,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인터뷰와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종합했다. 심층인터뷰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회적지지 중 정서적인 안정감과 관련된 부분을 얻는다고 인식했다. 특히, 국내에서 남성동성애자는 군대에서 동성애자 색출작전이 시행되고(군인권센터, 2017), HIV/AIDS의 낙인적 담론이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등(김민제, 2019; 이대웅, 2023) 사회적 인식이 더욱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또한, 메이어(Meyer, 2003)는 성소수자가 심리사회적인 영역에서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해 다룬 소수자 스트레스(Minority stress)이론을 제시했다. 남성동성애자들도 이성

애증심적인 사회적 규범으로 인해 일상에서 다양한 스트레스원에 노출될 수 있는데, 소셜미디어는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공간이 됐다. 외로움의 경우 약화시킨다는 인식과 강화시킨다는 인식이 응답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다른 남성동성애자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기대가 높은 사람인 경우, 본인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으로 인해 외로움을 더욱 심각하게 느낄 수 있다(친구사이, 2014).

설문조사 응답을 분석하기 위해 각각의 소셜미디어 이용량이 온라인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물질적 지지와 동반자적지지 그리고 외로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했다. 분석결과 SNS이용량은 물질적지지에 유일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동반자적 지지의 경우 SNS이용량은 정적인 영향을,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량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외로움의 경우 F 통계량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SNS, 인터넷 커뮤니티, 데이팅앱 등의 이용량이 투입된 회귀모델은 외로움을 설명하는데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소셜미디어 이용이 외로움과 관계가 적다는 최근 선행연구들과(Yavich et al., 2019) 인터뷰에서 응답자에 따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다. 한편, 커뮤니티 이용량은 동반자적 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용할수록 물질적지지를 제외한 전반적인 사회적지지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동성애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문화에 따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가장 많이 쓴다고 응답한 인터뷰참여자 A는 사회적지지에 대한 질문에 “다른 남성동성애자가 또 다른 남성 동성애자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거나 “(인터넷 커뮤니티의 문화가) 외모지상주의로 가는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주목받지 않았던 남성동성애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에 관해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혼합연구를 적용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먼저 연구참여자들이 특정 소셜미디어에 편중됐을 수 있다. 남성동성애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SNS, 인터넷 커뮤니티, 데이팅앱 등 다양한 채널에 동일한 게시글을 올려 표집을 시도했으나 특정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데이팅앱의 이용자가 주를 이뤘다. 물론 연구참여자가 소셜미디어를 중첩해서 사용하거나 다른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이들이 연구참여에 대한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겠으나, 표집방법이 엄밀하지 못한 영향일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표집을 위한 방법을 꼼꼼하게 설계하거나, 소셜미디어의 운영진에 미리 협조받는 방법도 권장한다. 다음으로 각각의 소셜미디어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필요하다.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국외 연구들에서는 소셜 미디어 이용의 효과가 종종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소셜

미디어 이용 행위의 수준이나 소셜 미디어 종류에 따른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Chan, 2023; Escoba-Viera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소셜미디어를 다루기 위해 SNS와 데이팅앱,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해 조사했으나 이들은 고유한 특성과 기능, 문화를 가질 수 있다. 또한, 각 소셜미디어 내에서도 어떠한 특정 온라인 공간인지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소셜미디어 내의 커뮤니케이션이나 문화 등을 세밀하게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세번째로 양적분석을 적용한 연구II의 경우 표본의 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통계적인 분석은 145명의 응답자 중 연구대상자 확인을 통해 1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의 성격이 탐색적이라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표본의 수가 많다고 보긴 어렵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이들의 응답을 획득하여 체계적 회귀분석이나 구조방정식모형 등을 적용해 변인들 간의 관계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소수자는 언제나 존재했고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동성혼 인정법안이 백악관에서 서명되고(Lee, Klein, & Liptak, 2022), 일본에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되는 등(박성진, 2023), 최근 해외의 많은 국가들이 성소수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다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이뤄내고 있다. 국내에서도 가족구성권 법안 발의나(임재우, 2023), 네이버 및 카카오의 성소수자 혐오표현을 제재하는 등(김병욱, 2023) 등 변화의 물살이 거세다. 이러한 흐름에서 성소수자에 관한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의 적극적인 연구는 사회통합을 촉매할 것이다. 우리 사회를 통합하고, 당사자들의 고통을 덜어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길 희망한다.

References

- Aldrich, R. (2004). Homosexuality and the city: An historical overview. *Urban Studies*, 41(9), 1719-1737.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2). Guidelines for psychological practice with lesbian, gay, and bisexual clients. *The American Psychologist*, 67(1), 10-42.
- Berger, M. N., Taba, M., Marino, J. L., Lim, M. S., Cooper, S. C., Lewis, L., ... & Skinner, S. R. (2021). Corrigendum to: Social media's role in support networks among LGBTQ adolescents: A qualitative study. *Sexual Health*, 18(5), 444.
- Blackwell, C., Birnholtz, J., & Abbott, C. (2015). Seeing and being seen: Co-situation and impression formation using Grindr, a location-aware gay dating app. *New Media & Society*, 17(7), 1117-1136.
- Boulianne, S. (2015). Social media use and participation: A meta-analysis of current research.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8(5), 524-538.
- Brandt, S. A., & Carmichael, C. L. (2020). Does online support matter? The relationship between online identity-related support, mattering, and well-being in sexual minority me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11, 106429.
- Chan, R. C. (2023). Benefits and risks of LGBT social media use for sexual and gender minority individuals: An investigation of psychosocial mechanisms of LGBT social media use and well-being.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39, 107531.
- Cheng, C., Lau, Y. C., Chan, L., & Luk, J. W. (2021). Prevalence of social media addiction across 32 nations: Meta-analysis with subgroup analysis of classification schemes and cultural values. *Addictive behaviors*, 117, 106845.
- Chin-goo-sa-i. (2014). Final report on social needs of the Korean LGBTI community. Retrieved 3/1/22 from <https://sogilaw.org/39> [친구사이 (2014). 한국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최종보고서.]
- Chin-goo-sa-i. (2019). Diverse stories of gay communities. *Moonhakdul*, 56, 226-251. [친구사이 (2019). 게이 커뮤니티의 다종다양한 이야기. <문학들>, 56호, 226-251.]
- Chong, E. S., Zhang, Y., Mak, W. W., & Pang, I. H. (2015). Social media as social capital of LGB individuals in Hong Kong: Its relations with group membership, stigma, and mental well-being.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55, 228-238.
- Chu, Y. S. (2022). The impact of public attitude towards social minorities in South Korea on the attitude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anti-discrimination law. *Journal of Welfare Administration*, 26(1), 1-24.

- [주유선 (2022).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복지행정논총>, 26권 1호, 1-24.]
- Chun, W. K. (2015). Social exclusion of same-sex-love and practices of gay men in the 1980s Sunday Seoul Magazines. *Gender and Culture*, 8(2), 139-170. [전원근 (2015). 1980년대 『선데이서울』에 나타난 동성애담론과 남성 동성애자들의 경험. <젠더와 문화>, 8권 2호, 139-170.]
- Cronin, A., & King, A. (2014). Only connect? Older lesbian, gay and bisexual (LGB) adults and social capital. *Ageing & Society*, 34(2), 258-279.
- Erickson, F. (2011). A history of qualitative inquiry in social and educational research.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4, 43-59.
- Erzen, E., & Çikrikci, Ö. (2018). The effect of loneliness on depression: A meta-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64(5), 427-435.
- Escobar-Viera, C. G., Whitfield, D. L., Wessel, C. B., Shensa, A., Sidani, J. E., Brown, A. L., ... & Primack, B. A. (2018). For better or for worse? A systematic review of the evidence on social media use and depression among lesbian, gay, and bisexual minorities. *JMIR Mental Health*, 5(3), e10496.
- Gibson, J. J. (1977). The theory of affordances. *Hilldale, USA*, 1(2), 67-82.
- Go, H. S. (2022, October 7). Anti-queer festivals? It was an excuse [the hateful minute]. *The Hankyoreh*. Retrieved from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656.html [고한솔 (2022, 10, 7). 퀴어축제 때문에 반감? 핑계였다 [혐오의 민낯]. <한겨레>.]
- Gruzd, A., Wellman, B., & Takhteyev, Y. (2011). Imagining Twitter as an imagined communit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5(10), 1294-1318.
- Han, Y. S. (2013). Exclusive space and community building for sexual minorities: A case study of the Itaewon fire station alley. *Seoul Journal of Urban Studies*, 14(1), 253-269. [한유석 (2013). 성소수자들의 공간 전유와 커뮤니티 만들기: 이태원 소방서 골목 사례 연구. <서울도시연구>, 14권 1호, 253-269.]
- Harper, G. W., Bruce, D., Serrano, P., & Jamil, O. B. (2009). The role of the Internet in the sexual identity development of gay and bisexual male adolescents. In P. L. Hammack & B. J. Cohler (Eds.), *The story of sexual identity: Narrative perspectives on the gay and lesbian life course* (pp. 297-326). Oxford University Press.
- Hofstede, G. (1991). Empirical models of cultural differences. In N. Bleichrodt & P. J. D. Drenth (Eds.), *Contemporary issues in cross-cultural psychology* (pp. 4-20). Swets & Zeitlinger Publishers.

- Hong, G. P.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SNS addiction pronenes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issues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7(1), 34-67. [홍구표 (2017).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7권 1호, 34-67.]
- House, J. S. (1983).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Hu, J., Hu, J., Huang, G., & Zheng, X. (2016).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and loneliness among LGB adults and heterosexual adults in China. *Journal of Homosexuality*, 63(1), 72-86.
- Hwang, Y. S. (2013). Ideological polarization in Twitter spaces through selective exposure behavior.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7(2), 58-79. [황유선 (2013). 선택적 노출 행위를 통해 바라본 트위터 공간의 이념적 양극화. <한국언론학보>, 57권 2호, 58-79.]
- Jang, S. A., & Nam, J. I. (2022). A study on transgender representation of Korean newspaper.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22(2), 100-142. [장수아·남재일 (2022). 한국 신문의 트랜스젠더 재현 취재관행 및 프레임 분석. <언론과학연구>, 22권 2호, 100-142.]
- Jang, S. R., Son, A. L., & Cho, B. H. (2014). Development of research methods for surveying homosexuals. *Journal of Public Health*, 51(1), 21-33. [장사랑·손애리·조병희 (2014). 동성애자에 대한 조사연구 방법 개발 연구. <보건학논집>, 51권 1호, 21-33.]
- Jang, S. Y., Kim, J. H., Kim H. K., Na. Y. J., Jeong. H. H., Ryu. M. H., ... & Park. H. H.. (2014).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discrimination survey*.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Retrieved from <https://library.humanrights.go.kr/search/detail/CATTOT000000038573> [장서연·김정혜·김현경·나영정·정현희·류민희·조혜인·한가람·박한희 (2014).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Jaspal, R. (2017). Gay men's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identity on Grindr. *Sexuality & Culture*, 21, 187-204.
- Jeong, H. S. (2021). Formation of sexual identity among Korean LGBTQ+ youth. *Journal of Qualitative Social Welfare Research*, 15(3), 31-60. [정혜숙 (2021). 한국 성소수자 청년의 정체체성형성 경험.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5권 3호, 31-60.]
- Jeong, K. W. (2002). The discourses on lesbians in Korea, *Journal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2(2), 57-90. [정경운 (2002). 한국 사회의 레즈비언 담론 양상. <민주주의와 인권>, 2권 2호, 57-90.]
- Jeong, S. J., & Jeong, Y. R. (2022). Safe spaces for LGBTQ+ youth: Alternative spaces created by "excluded others." *Space and Society*, 32(2), 103-141. [정성조·정용립 (2022). 청소년 성소수자와 안전공간.

‘배제된 이들’이 만들어어나가는 대안 공간들. <공간과 사회>, 32권 2호, 103-141.]

Jeong, S. J., Kim, B. M., Sim, K. Y., & Han, S. J. (2021). *A report on the social desires and current situation of young sexual minorities*. Dawoom. [정성조·김보미·심기용·한성진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조사결과보고서. <다음>.]

Jeong, S. J., & Lee, N. Y. (2018). Invisible soldiers: Homophobia and sexual minority identities within the South Korean military. *Culture and Society*, 26(3), 83-145. [정성조·이나영 (2018). 보이지 않는 군인들: 한국 군대 내 동성애혐오와 성소수자 정체성. <문화와 사회>, 26권 3호, 83-145.]

Jin, B. (2022). The impact of college students' perceived economic status and social media use on relative deprivation and lonelines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Human-Computer Interaction*, 17(1), 15-23. [진보래 (2022). 대학생들의 경제 수준 인식과 소셜미디어 이용이 상대적 박탈감과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HCI학회 논문지>, 17권 1호, 15-23.]

Jo, Y. H. (2022) Having an asexual orientation in Korea: An exploratory research. *Media, Gender, & Culture*, 37(4), 125-159. [조윤희 (2022). 한국에서의 무성애 지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온라인 커뮤니티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7권 4호, 125-159.]

Kang, O. (2015). LGBT, We are here now: Sexual minorities and spaces in contemporary South Korea. *Comparative Cultural Studies*, 21(1), 5-50. [강오름 (2015). “LGBT,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 현대 한국의 성적소수자와 공간. <비교문화연구>, 21권 1호, 5-50.]

Keum, H. J. (2010). Online social media and participatory social capital: Focusing on the connected vs. bonding use of Korean and Americ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Broadcasting Studies*, 24(5), 9-46. [금희조 (2010). 온라인 소셜 미디어와 참여적 사회 자본: 한국과 미국 대학생의 연결적 vs. 결속적 이용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4권 5호, 9-46.]

Keum, H. J. (2011). Are we happy in the age of social media?: The impact of social media use on social capital and emotional well-being. *Journal of Korean Broadcasting Studies*, 25(5), 7-48. [금희조 (2011). 소셜 미디어 시대, 우리는 행복한가?: 소셜 미디어 이용이 사회 자본과 정서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25권 5호, 7-48.]

Kim, B. U. (2023, June 2). *Naver and Kakao face sanctions for expression of 'LGBTQ hatred'*. Newdaily Economy. [김병욱 (2023, 6, 2). 네이버·카카오, '성소수자(LGBTQ) 혐오' 표현 제재 나서. <뉴데일리 경제>.]

Kim, E. K., & Kwon, J. H. (2004). The impact of gay-related stressor on mental health of gay me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3(4), 969-982. [김은경·권정혜 (2004). 동성애 관련 스트레스가

남성 동성애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3권 4호, 969-982.]

Kim, J. K. (2021, March 14). [Straight] *Hating LGBTQ people to get elected: The shallowness of politicians*. MBC. Retrieved from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118461_28993.html [김지경 (2021, 3, 14). [스트레이트] 성소수자 혐오해야 국회의원 당선된다? 정치인들의 얕은 셈법. <MBC>.]

Kim, J. S., Jeon, Y. L., & Kim, M. C. (2021).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s of non-LGBTQI people who have direct contact with LGBTQI people.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JLCCI)*, 21(23), 671-691. [김정숙·전유림·김명찬 (2021). 성소수자와 직접적인 접촉경험이 있는 비성소수자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권 23호, 671-691.]

Kim, J. Y., & Choi, S. M. (2021).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online social support scale (K-OSSS). *Journal of Youth Studies*, 28(4), 1-34. [김지연·최승미 (2021). 한국판 온라인 사회적 지지 척도 (K-OSSS) 의 타당화 연구. <청소년학연구>, 28권 4호, 1-34.]

Kim, M. H. (2016). A study on mobile social media use and social capital of middle-aged men in their 50s.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30(1), 36-70. [김명혜 (2016). 50대 중년남성의 모바일 소셜미디어 이용과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30권 1호, 36-70.]

Kim, M. J. (2019, December 1). "Homosexuality causes AIDS"...Politicians leading the charge against minorities. *The Hankyoreh*. Retrieved from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9142.html [김민제 (2019, 12, 1). “동성애가 에이즈 원인”...소수자 혐오 앞장서는 정치권. <한겨레>.]

Kim, N. N., & Kwon, S. Y. (2021). The research on the influence of religion in the formation of the LGBT identity. *KJCC*, 32(3), 9-34. [김나나·권수영 (2021). 성소수자의 정체성 형성과정에 미치는 종교의 영향에 관한 생애사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2권 3호, 9-34.]

Kim, S. H. (2004). Attitude and social distance towards the minority group in the Korean society. *Social Research*, 7, 169-206. [김상학 (2004).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5권 1호, 169-206.]

Kim, Y. I. (2015). Perception of social support and patterns of social media use: Focusing on personality, motivation, and usage behavior of social media user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4), 407-419. [김영임 (2015).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이용행태와 사회적 지지감 인식: 성격, 이용동기, 이용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권 4호, 407-419.]

- Ko, K. K., Tak, H. W., & Kang, S. J. (2015). The impact of reverse coding on survey response and analysi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9(3), 515-539. [고길곤·탁현우·강세진 (2015). 설문조사에서 문항의 역코딩 여부가 응답결과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측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9권 3호, 515-539.]
-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022, March 24). Korea Social Integration Survey Retrieved 03/01/22 from https://www.kipa.re.kr/site/kipa/research/selectBaseView.do?sessionId=EEEDD1C73638BACCC5A925AA81DC0573?seSubCode=BIZ017A001&seqNo=BASE_000000000000671 [한국행정연구원 (2022, 3, 24).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 Lee, C. H., & Jeong, N. W. (2014). The impact of social media use and motive on social capital: Comparison of open/closed social media.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65(1), 5-26. [이창호·정낙원 (2014). 소셜미디어 이용정도 및 이용동기가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개방형/폐쇄형 소셜미디어 비교. <한국언론정보학보>, 65권 1호, 5-26.]
- Lee, D. W. (2023, May 11). "Prevent youth from falling prey to AIDS through homosexuality". *Christiantoday*. Retrieved from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54382> [이대웅 (2023, 5, 11). “청소년들, 동성에 통해 에이즈 빠지지 않도록 예방을”. <크리스천투데이>.]
- Lee, H. R. (2015). The impact of minority stress on the mental health of Korean sexual minorities (LGB).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이호림 (2015). <소수자 스트레스가 한국 성소수자(LGB)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Lee, H. Y., Cheong, D. W., & Jeong, S. J. (2021). A democratic response to COVID-19 or a governance with people without rights: The Itaewon ‘gay club’ mass infection in South Korea.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45, 272-314. [이희영·정다울·정성조 (2021). 민주적 방역, 혹은 권리 없는 자들과의 협치: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례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45호, 272-314.]
- Lee, H. R., Lee, H. M., Joo, S. S., Kim, R. Y., Eom, Y. J., & Kim, S. S. (2022). The need for measuring sexual minority identities in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s: Reviewing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situations and proposing measurement items. *Critical Social Policy*, 74, 175-208. [이호림·이혜민·주승섭·김란영·엄윤정·김승섭 (2022). 국가 대표성 있는 설문 조사에서의 성소수자 정체성 측정 필요성: 국내외 현황 검토와 측정 문항 제안. <비판사회정책>, 74호, 175-208.]
- Lee, J. M., & Lee, D. Y. (2019). A comparative study on social distance for social minoritie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An analysis of attitude differences and influential factors for the disabled, multicultural people, and homo.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43(43), 61-98. [이정민·이동영

- (2019). 대학생이 인식한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비교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43권 43호, 61-98.]
- Lee, J. Y., Lee, A. R., & Yoon, E. H. (2020). Difficulties and helpful factors in counseling for sexual minority clients. *Asian Education Studies*, 21(2), 577-612. [이주영·이아라·윤은희 (2020). 성소수자 내담자 대상 상담에서 상담자가 인식하는 어려움과 도움요인. <아시아교육연구>, 21권 2호, 577-612.]
- Lee, M. J., Klein, B., & Liptak, K. (2022, December 13). *Biden signs into law same-sex marriage bill, 10 years after his famous Sunday show answer on the issue*. CNN. Retrieved from <https://edition.cnn.com/2022/12/13/politics/white-house-same-sex-marriage-signing-ceremony/index.html>
- Lee, S. J. (2007). The formation of a gay men's place: A case of Nagwon-dong in Jongno-gu. *Journal of Geography*, 49, 23-44. [이서진 (2007). 게이 남성의 장소 형성-종로구 낙원동을 사례로. <지리학논총>, 49권, 23-44.]
- Lee, S. Y. (2023, July 19). [2023 LGBTQ Survey] *How do you feel about LGBTQ people?* HankookResearch. Retrieved from <https://hrcopinion.co.kr/archives/27166> [이소연 (2023, 7, 19). [2023 성소수자인식조사] 성소수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리서치>.]
- Lee, S. Y., & Jung, L. S. (2010). A review of social network services (SNS) in the Web 2.0 era. *Management and Information Research*, 29(4), 143-167. [이석용·정이상 (2010). 웹 2.0 시대의 SNS (Social Network Service) 에 관한 고찰. <경영과 정보연구>, 29권 4호, 143-167.]
- Lim, J. W. (2023, May 31). *Jang Hye-young, the first mo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to legalize same-sex marriage... Rep. Kim Ye-ji also joined the power*. The Hankyoreh. Retrieved from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94004.html> [임재우 (2023, 5, 31). 장혜영, '동성혼 법제화' 국회 첫 발의...국힘 김예지 의원도 가세. <한겨레>.]
- Lim, D. Y. (2019). Queer theoretical analysis of homosexual identity formation: Focused on the oral history of old gay men. *Media, Gender & Culture*, 34(3), 225-296. [임동현 (2019). 동성애적 정체성 형성의 퀴어이론적 분석: 노년 게이 남성의 구술생애사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4권 3호, 225-295.]
- Lim, M. S. (2020).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loneliness among mobile messenger users. *Management Consulting Research*, 20(3), 135-152. [임명성 (2020). 모바일 메신저 사용자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영컨설팅연구>, 20권 3호, 135-152.]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
- Meshi, D., & Ellithorpe, M. E. (2021). Problematic social media use and social support received in real-life versus on social media: Associations with depression, anxiety and social isolation. *Addictive Behaviors*, 119, 106949.
- Meyer, I. H. (2003). Prejudice, social stress, and mental health in lesbian, gay, and bisexual populations: Conceptual issues and research evidence. *Psychological Bulletin*, 129(5), 674.
- Military Human Rights Center. (2017, April 17). Evidence of the army's outing and punishment of gay soldiers public briefing. Retrieved from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761> [군인권센터 (2017, 4, 17). 육군 동성애자 군인 색출 및 처벌 증거 자료공개 브리핑.]
- Mustangin, M. (2018). Social media among homosexuals: A new era of gay life in the age of technology. *Masyarakat, Kebudayaan dan Politik*, 31(4), 410.
- Na, E. Y. (2010). *Media psychology*. Hana Narae Publishing. [나은영 (2010). <미디어 심리학>. 한나래 출판사.]
- Na, E. Y., & Na, E. K. (2015). Perception of media space and presence: A stage model of psychological spatial movement.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9(6), 507-534. [나은영 · 나은경 (2015). 미디어 공간 인식과 프레즌스: 심리적 공간 이동의 단계 모델. <한국언론학보>, 59권 6호, 507-534.]
- Namkoong, M., & Park, J. E. (2020). A content analysis: Research on sexual minorities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32(3), 1469-1498. [남궁미·박정은 (2020). 성소수자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권 3호, 1469-1498.]
- Newsis. (2022, October 18). *The 'scam phishing' that lawmaker Kim Namguk was trying to figure out under the 'gay app'...* Retrieved from <https://www.fnnews.com/news/202210180602426362> [뉴스시스 (2022, 10, 18). 김남국 의원이 '동성애 앱' 깔아 파악하려던 '스캠 피싱' 실패는...]
- Nick, E. A., Cole, D. A., Cho, S. J., Smith, D. K., Carter, T. G., & Zelkowitz, R. L. (2018). The online social support scale: Measure development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Assessment*, 30(9), 1127.
- O'Day, E. B., & Heimberg, R. G. (2021). Social media use, social anxiety, and loneliness: A systematic review. *Computers in Human Behavior Reports*, 3, 100070.
- Park, J. W. (1985).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Yonsei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Park, S. J. (2023, June 13). *Japan's LGBTI anti-discrimination law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Legislative pressure from the US and Europe*. Yeonhap News. Retrieved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230613109300073?section=news&site=header_newsflash [박성진 (2023, 6, 13). *일성소수자 차별금지법 국회 통과...美·유럽이 입법 압박해와*. <연합뉴스>.]
- Peterson, N., Lee, J., Svec, J., & Russell, D. (2023). Diversity in social communication and support: Implications for loneliness among LGB adults. *The Gerontologist*, 63(2), 361-372.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and Schuster.
- Roth, Y. (2016). Zero feet away: The digital geography of gay social media. *Journal of Homosexuality*, 63(3), 437-442.
- Ryu, S. A. (2017). The relationships among contact, threat, and prejudice toward the minority group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31(4), 225-245. [류승아 (2017). 소수집단에 대한 접촉경험, 위협감, 편견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31권 4호, 225-245.]
- Savci, M., & Aysan, F. (2016). Relationship between impulsivity, social media usage and loneliness. *Educational Process: International Journal*, 5(2), 106.
- Seo, M. K., & Oh, J. H. (2011). The effect of social network services on the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social capital. *Journal of Social Science*, 13, 111-138. [서문기·오주현 (2011). 사회 네트워크 서비스가 사회 자본의 형성과 유지에 미친 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13호, 111-138.]
- Seo, Y. S., An, S. J., Kim, H. J., & Ko, S. I. (2020). Loneliness in Koreans: Conceptual definition and measurement.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9(2), 205-247. [서영석·안수정·김현진·고세인 (2020). 한국인의 외로움 (loneliness): 개념적 정의와 측정에 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9권 2호, 205-247.]
- Shin, S. B. (2013). Factors influencing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Korean homosexual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3(1), 380-415. [신승배 (2013). 한국 동성애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사회연구>, 33권 1호, 380-415.]
- Son, Y. J., & Heo, M. S. (2020). Study on the use of social media and perceived helplessness and loneliness after the spread of COVID-19.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21(11), 1957-1971. [손영준·허만섭 (2020). 코로나 19 확산후 소셜미디어 이용과 무력감·외로움 체감에 관한 연구.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1권 11호, 1957-1971.]
- Won, S. Y. (2017). Social tolerance for foreigners and homosexuality and its policy implications: An exploratory study.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1(3), 225-256. [원숙연 (2017). 이주외국

인과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관용’의 구조와 정책적 함의: 탐색적 비교연구. <한국행정학보>, 51권 3호, 225-256.]

Wu, S., & Ward, J. (2018). The mediation of gay men's lives: A review on gay dating app studies. *Sociology Compass*, 12(2), e12560.

Yavich, R., Davidovitch, N., & Frenkel, Z. (2019). Social media and loneliness--Forever connected? *Higher Education Studies*, 9(2), 10-21.

Young, S. D., Cumberland, W. G., Singh, P., & Coates, T. (2022). A peer-led online community to increase HIV self-testing among African American and Latinx MSM: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ournal of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s*, 90(1), 20-26.

Yun, Y. K. (2023, April 20). *Media stigmatizes LGBTQ people again in Empox outbreak*. Mediatoday. Retrieved from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692> [윤유경 (2023, 4, 20). 엠평스 확산에 다시 성소수자 낙인찍는 언론. <미디어오늘>.]

최초 투고일 2023년 06월 15일

게재 확정일 2023년 08월 02일

논문 수정일 2023년 08월 03일